



[그때 그 이야기]

연변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우리의 '제 2 고향'

- 30여년전 고향을 안고 천만리길 달려왔던 요조당·림소란 부부를 추억하여

손꼽아 세여보니 지금으로부터 32년전인 1992년 8월 14일이였다.

당시 화룡시 서성진 발흥소에서 일하고 있던 필자는 서성촌 제3촌민소조에 과거 이 마을로 하향 내려왔던 상해지식청년 부부가 찾아왔으니 가서 취재해보라는 진담위 문서 남부적의 제의를 받았다.

지체할세라 달려가 보니 40대 중반쯤 돼보이는 중년부부와 20대 초반의 청년이 한 농가 온돌에 앉아 마을사람들과 정담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40대 중년부부는 1969년도에 상해에서 서성촌에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왔던 요조당(姚祚塘), 림소란(林少兰) 부부였고 20대 젊은이는 1971년도에 서성촌에서 출생한 이들 부부의 아들 요연민(姚延民)이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머나먼 상해에서부터 고향을 품에 안은 채 천만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몇날 몇밤을 기차와 배를 번갈아 타면서 동북변강의 농촌마을인 서성촌까지 내쳐 달려왔던 것이다. 그들이 고향을 안고 상해에서부터 고생스럽게 달려온 데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강 농촌에서 맺어진 조한 두 민족의 피보다 더 진한 '혈육'의 정

1969년, 상해지식청년 요조당과 림소란은 하향지식청년으로 대도시 상해에서 변강의 자그마한 농촌마을에 상해형 서성공사 서성 3대로 오게 되었다. 하향한 이듬해 요조당과 림소란은 백년기약을 맺고 타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당시 집체제가 비좁아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인품 좋은 서성촌의 촌민 리생금할머니가 그들에게 선뜻 자기 집 웃방을 내어주었다.



▲ 상해에서 요조당 가족과 함께 있는 리생금할머니의 생전 모습

리생금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머나먼 상해에서 산절고 낯선 타향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 부부의 딱한 사정을 가늠하여 여겨 함께 살면서 생활상에서 친자식 못지 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1971년도에 요조당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자 리생금할머니는 마치 친손자를 본 것마냥 기뻐했으며 애를 애지중지 보살펴주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연변에서 태어났고 연변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연민(延民)이라고 지었다. 그 당시 비록 생

활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들은 한가 마밥을 먹으면서 친부모와 자식 못지 않은 가족애로 서로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갔다.

그러던 1979년, 지식청년 정책이 시달되어 요조당 부부는 10년 만에 다시 상해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들 부부는 친혈육이 없이 혼자 사는 리할머니를 홀로 두고 차마 상해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리할머니를 아예 상해에 모시고 가기로 마음 먹었다. 상해에 계시는 요조당의 부모님들도 사람은 은공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리할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것을 견결히 찬성해 나갔다.

처음에 리생금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요조당 부부의 진심어린 권고와 끈질긴 청구에 결국은 상해로 가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살아오면서 고향마을을 멀리 떠나본 적도 없는 리할머니는 이들 부부의 지청구에 못이겨 일단 먼저 몇해 동안만 상해에 가서 살아보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제 늙어 세상 떠날 임오려고 준비해두었던 수의도 고향마을에 맡겨두고 갔고 집 판 돈 800원도 고향마을 저축소에 넣어둔 채 상해로 떠나갔다. ▶ 2면으로

길림성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 공기 우량일수 비례 92.4%

3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2023년 길림성 생태환경 상황 공보>를 발표했다. 길림성생태환경경정관 책임자가 <2023년 길림성 생태환경 상황 공보>에 대해 해독하고 우리 성의 '6.5 환경의 날' 활동 관련 상황을 공표했다.

2023년, 성당위와 성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 성 생태환경계통은 습근평 생태명명사상을 충실히 실천하고 길림의 전면 진흥이 솔선하여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할 데 관한 성당위와 성정부의 결책과 포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1주 6성' 고품질 발전 전략에 적극 응징시켜 아름다운 길림 건설의 전방목표를 확정하고 고수준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였다. 오염방지 공략전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잘 치르고 생태환경 보호감찰을 확실하게 전개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법적보장을 보완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와 집행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생태환경 보호 제반 사업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북방의 생태안전 병풍을 한 층 더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향상되었다.

대기환경의 질이 안정적이고도 공고히 유지되었다. 2023년, 전 성 생태환경계통은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전 성 대기환경 질이 계속 전국 제1방진(方阵)을 유지했다. 국가의 심사비중을 거쳐 전 성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 우량일수 비례는 92.4%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5.6% 포인트 높았으며 초미세먼지(PM2.5) 년평균 농도는 26.5 μg/m³로 전국 평균보다 3.5 μg/m³ 높았는바 이상 두 지표가 8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등 6개 주요 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6년 연속 국가 2급 표준에 도달했으며 전 성에 산성비가 내리지 않았다.

수질환경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2023년, 전 성 111개 국가 지표수 시험단면중 18개 단면수질 유형이 동기 대비 제고되고 46개 단면수질 유형이 국가 심사목표보다 높았다. 지표수 국가 통제 단면의 우량수체(I-III류) 비례가 86.2%에 달해 동기 대비 4.4% 포인트 상승하고

국가 년도 심사목표보다 10.1% 포인트 높았으며 저질 5류 수질단면을 전면적으로 제거했다. 수질환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을 창조해 2021년 이래 '3년 연속 상승'을 실현했고 개선폭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8개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연길시 포함)가 사용하는 집중식 생활음료수 식수원의 수질이 안정을 유지했다. 국가 지하수 평가 지점의 수질이 안정을 유지했다.

생태의 질이 량호하게 유지되었다. 2023년, 전 성 생태품질지수(EQI치)는 66.99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으며 생태품질지수는 20년 연속 량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자연생태계는 생물의 다양성이 비교적 풍부하고 생태구조가 비교적 안정하며 생태기능이 비교적 완벽한바 전 성 삼림피복률은 45.42%이고 초원의 종합식물 피복도는 67.06%였다. 그외 도합 22개 국가급 자연보호구와 17개 성급 자연보호구가 있는데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퉁만군 국가삼림공원은 세계자연보호련맹의 녹색명부에 입선되면서 '세계 최고의 자연보호지'로 평가받았다.

농촌 및 토양 환경의 질이 안정적

이고 안전했다. 2023년, 전 성 토양환경의 질은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비교적 좋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농업용지의 토양환경이 량호하고 중경 건설 용지의 안전 리용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었다. 농촌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량호하여 농촌환경상황지수 평균치가 89.63에 달했다.

소리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었다. 2023년까지 전 성 지역의 소리환경 질은 안정적이었는바 낮 평균치는 54데시벨(A)이고 밤 평균치는 45.7데시벨(A)이었다. 도로교통의 소리환경은 낮 평균 67.2데시벨(A), 밤 평균 57.5데시벨(A)로 량호했다. 기능구역 소리환경 질의 경우, 낮시간대 기준도달률은 92.7%로 동기 대비 3.8% 포인트 상승하고 야간시간대 기준도달률은 76.8%로 6년 연속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방사환경이 안정을 유지했다. 공기, 물, 토양의 방사성 핵종 농도는 자연 본질 변동 범위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성 감시 주파수 범위 내의 전기장 강도는 시중 국가표준이 규정한 대중 모출 통제 한계치보다 낮았다.

/ 오건기자

통화시, '입양농업' 류행된다

"우리는 논 1무를 입양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체험하고 량식에 대해 료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통화현 금두조선족만족향 비입양(认养)기지에서 통화 시민 왕효하는 아이들과 함께 논에 모를 심으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농촌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 문화, 관광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면서 통화시 '입양농업'은 새로운 류행으로 떠올랐다. 신형의 현대농업 창조 경영모식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도시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농촌경제 발전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했다.

비입양기지에 들어가 겨울같이 반듯한 논판을 바라보니 장화를 신은 입양인 몇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벼모를 손에 쥐고 모내기를 하며 귀농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비입양기지 책임자 고옥춘은 입양모식이 출범되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이 특히 많아서 지금은 16무의 논을 성공적으로 입양하였습니다. 입양인들은 직접 모내기, 감매기, 수확 및 전원생활에 종사하거나 우리가 대신 맡아 관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을걷이 때는 쌀을 가공하고 포장한 뒤 직접 입양인의 집으로 보내 자연 그대로의 무공해 입쌀을 맛보게 합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통화현 금두조선족만족향은 수원지 보호구내에 위치해있는데 물속에 각종 미량원소와 천연유기물이 풍부하고 벼 생산 전 주기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이 없는바 우수한 품질은 고옥춘으로 하여금 '입양농업'을 모색하는 데 큰 심심을 가지게 했다.

취남현 조양진 신승촌장지부 주관 합작사는 9,000평방미터의 황무지를 통합하여 177개 부지로 나누고 '채소밭 공유'를 개방하여 친환경 순 천연채소 재배와 채취, 농경문화 체험, 친자연학 등 다원화된 '행복농장'을 만들어 버려진 밭을 채소밭과 농장으로 변화시켰다.

"채소밭 공유"는 주로 '반위탁관리'모식을 채택하여 채소밭에서 토지, 수력발전, 경작도구 등을 제공하고 입양인이 자유롭게 재배, 채취하며 전원생활을 향유합니다."라고 신승촌장지부 서기 왕왕이 말한다.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 위해 통화시의 '입양농업'은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활성화시켰다. '토지 입양', '관광객 직접 재배' 등 모식은 농촌에 '인기'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체험 대상은 관광객과 농민이 새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여 농촌경제의 형태 전환과 승격을 이끌고 농민 수의 증대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다.

/ 길림일보



15일부터 장춘—연길 열차 운행시간 단축된다

중국철도 심양국그룹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6월 15일 0시부터 전국 철도는 새로운 열차운행도를 실행한다. 조정후 연변 철도는 려객열차 3.5쌍 신증하고 0.5쌍의 구간을 연장하며 1.5쌍의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연변에 려객 흐름을 흡인하는 데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주입할 전망이다.

중국철도 심양국그룹유한회사는 변강지역 관광, 경제, 문화 교류 및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광범한 려객들의 개성과 출행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길차무단 관할구역내의 려객열차 운행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춘—장백산 도시간 열차를 1.5쌍 추가하며 할빈—훈춘 쾌속열차를 0.5쌍 추가하고 훈춘—집대해서 쾌속열차를 0.5쌍 추가한다. 새로운 운행도를 실시한 후 훈춘시에서 훈춘강성 집대해서까지 처음으로 고속철 직행을 실현하면서 연선 주민들의 가족 친

구 방문, 레저관광 출행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장백산지역 관광업의 활발한 발전에 조력하고 광범한 려객들의 장백산 관광 출행 수요에 만족시키고자 사평동—교하서 D8093편 열차 운행구간을 장백산까지 연장하고 차편을 D8095편으로 변경한다. 새로운 운행도 실시후 장백산역은 원래 하루에 열차 14쌍을 운행하던 데로부터 16쌍을 운행하게 된다.

3분기 운행도 조정에 관해 연길차무단에서는 운수조직을 최적화하고 운수능력 자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에 따라 관할구역내 부분적 도시간 열차 정차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운행도 실시후 장춘—연길서 C1029편 열차는 한정정차 직행을 실현, 운행시간이 2시간 12분에 불과하여 려객들의 출행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민넷—조문판

연변룡정팀 사령탑에 에스빠냐 출신 이반·콰드라도

6월 4일,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김봉길이 더는 연변룡정팀 감독을 맡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곧이어 에스빠냐 출신 이반·콰드라도(伊班·夸德拉多, Ib·n Javier Cuadrado Alonso)가 팀 사령탑을 잡게 되었다고 전했다.

1979년 2월 21일 에스빠냐 살라민카에서 태어난 이반·콰드라도는 에스빠냐 축구선수 바르셀로나의 라 마시아 청소년축구학교를 나왔으며 청소년팀 시절 하비, 이니에스타 등과 동료로 호흡을 맞추며 바르셀로나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말라가, 바레카노 등 팀에서 활약했다. 2013년 중국에 와서 상해동아팀에 입단했고 2015년 귀주지성팀으로 이적해 중앙수비수를 맡으며 팀이 슈퍼리그에 진출하는 데 한몫했다.

이반·콰드라도는 지난 3월 1일에 무석우구팀 감독을 맡았고 5월 20일에 경질되었다. 연변룡정팀은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2라운드후 현재 4승 4무 4패, 16점으로 8위에 머물러있다.

/ 김파기자



단오절 기간 휴간 통지

길림성우정국과의 발행 계약에 따라 본지 2024년 6월 8일(토요일), 6월 11일(화요일) 신문은 휴간합니다.

/ 편집부